



▶ 오만의 니즈와 전통재래시장

제공: WMM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람들이 지나갈 통로를 제외하고는 바닥에서부터 처마까지 도자기로 가득하다. 큰 항아리에서부터 벽에 거는 장식용 도자기까지 모양에 따라 그 쓰임새도 다양하다.

한참 도자기들을 보고 있으니 엘리사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많은 그릇을 준비한 여인이 생각난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남편이 죽은 후 남은 것이라고는 두 아들과 기름 한 항아리뿐. 두 아들마저도 빛

으로 팔려나가기 직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따라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다가 마지막 한 항아리에 남아있는 기름을 붓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기름은 빈 그릇이 없을 때까지 계속 흘러나왔다. 마르지 않는 기적 속에서 여인은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기 원하시고, 또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빈 그릇임을 인정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당신으로 만족하게 채우신다. [GNPNEWS]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립보서 4:19)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국가인권위원장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면 ‘죄’가 될까?”

지난 8월 7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신임 위원장이 9월 5일 취임식에서 “평등권 실현과 혐오·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계는 머지않아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은 2007년과 2011년, 2012년 각각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얼마 전 ‘성평등’ 논란을 낳았던 헌법개정안도 끝내 폐기됐다. 그러다 NAP가 결국 시행됐고, 장관급에 해당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이 마침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자신의 첫 번째 책무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여성, 난민, 성 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혐오표현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지역인권조례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

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 전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위하며 최 위원장의 취임을 반대했다. 이들은 최 위원장이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으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는 데 동의하고,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를 주장한 점을 들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그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GNPNEWS]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나라(에베소서 5:11,13)

기도 | 주님, 성 평등이나 인권이란 용어로 포장한다고 죄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마땅히 그들도 주의 사랑으로 섬기겠지만 죄를 옳다고 인정할 수는 없기에 이때 교회가 진리의 빛을 비추는 통로로 일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 얻는 자가 날로 더하게 하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65)

사랑과 공의를 모두 이룬 임금님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지인의 간절한 권유로 교회에 나가 봤지만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당신이 그동안 거절했던 선물의 정체를 밝혀드립니다. 포장지를 풀지 않은 채 여전히 당신 것이 되지 못한 그 선물들 말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선한 정치로 백성들을 잘 돌보는 임금님이 있

었습니다. 임금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나라 법을 어기고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백성들의 관심은 아들에게 내려질 임금님의 심판에 집중되었습니다. 드디어 법에 따라 ‘곤장 80대’의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형틀이 준비되고 아들은 엮드렸습니다. 이때 지켜보던 임금님이 왕의 옷을 벗어놓고 형틀 위에 엮드린 아들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덮었습니다. 임금님의 체면도 권위도 다 버리고 죽을 각오로 아들의 고통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을 덮은 아버지 때문에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임금님에게 계속 형

을 집행할 것을 주장하겠습니까? 선한 임금님은 공의와 사랑 둘 다 이룬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어서 받게 될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은 선물입니다. 당신의 형벌은 이미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당신이 겪을 지옥의 고통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역할이나 공로는 조금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선물로 이것을 받으면 됩니다. 구원의 선물,



일러스트= 김강선

천국 가는 선물,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선물이 당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느 구석엔가 처박아 두었다면, 먼지를 털어내고 선물의 포장을 뜯어 당신의 것으로 누리세요. 선물을 주신분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GNPNEWS]

* 신앙상담 316전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 전화' ☎ 1670-3160

INSIDE

뉴스 |

“전쟁 난민 경험한 한국, 난민 도와야” 2면

지상중계 | 복음학교건퍼런스

모든 프로그램에 복음을 담아... 교회의 생명력 넘쳐 3면

인터뷰 | 장기순 권사

“전도파켓 할머니로 살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5면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내 인내의 한계가 바닷길 때, 주를 보라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전쟁 난민 경험한 한국, 난민 도와야”

난민포럼, “한국 난민 인정률 4.0%, 국제평균 30%에 크게 못미쳐”
무슬림난민 악순환 경험한 유럽 사례 고려해 지혜롭게 대처해야



▶ 지난 6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난민반대 집회'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출처: bbc korea 캡처)

“한국은 역사적으로 난민과 뿔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일제식민지의 임시정부는 난민정부였고, 6·25전쟁 당시 발생한 난민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으며 오늘에 이른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예멘난민의 제주 입국으로 난민수용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열린 한 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난민포럼에서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는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은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전신인 UN한국재건단의 도움으로 일어난 나라”라며 “전쟁상태인 예멘난민을 환대하고 정착을 돕는 것은 한국의 중요한 숙제이며 인권적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로 목사(만리현교회 담임, 기성해외선교위원장)는 “무슬림 난민의 경우, 그들이 가진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모순되는 율법과 특이한 문화와 정신으로 인해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독

교인과 무슬림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며 그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유럽에서와 같이 ‘압제 받는 사람’들이 ‘압제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들을 사랑하더라도 뻔처럼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호택 대표(사단법인 피난처)는 “한국은 9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 난민법이 발효됐지만 난민인정률은 4.0%, 보호율 11.4%로 국제 평균(인정률 30%, 보호율 44%)에 훨씬 못 미치며 1000명당 난민수용율이 0.04명으로 세계 139위에 불과하다”고 난민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세계적 재난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산통의 시작”이라며 “교회는 난민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멘은 2011년 아랍의 봄으로 32

년간 장기집권한 압리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실각 이후 만수르 하디의 집권과 혼란이 지속돼오다 2015년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점령한 이후 예멘 정부를 축출하면서 혼란에 빠졌다.

이후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상군을 투입함으로써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간 대리전 성격의 내전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예멘 국민 2800만 명 중 2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인구의 3/4에 해당하는 2200만 명이 원조와 보호가 필요하다.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은 2017년 약 5만 명의 아동이 사망했으며, 하루 평균 130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 도착한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은 시아파 반군 후티의 강제징집을 피해온 18~35세의 남성(여성 48명)이며 가족은 5가정과 5켜플에 이른다고 박준범 대표(예멘 난민을 위한 사마리안 행동)가 밝혔다. [GNPNEWS]

말레이 교회, 목회자 실종 이후… 전국 후 첫 연합기도

지난 몇 년간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 사역을 하던 목회자의 잇따른 실종 사건 이후, 말레이시아 교회들이 국가와 정부를 위해 기도하는 등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고 기독교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화교 교회를 개척해 무슬림 대상으로 사역해온 레이몬드 코 목사는 지난해 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다섯 대의 차량과 두 대의 오토바이가 동원된 가운데 복면을 쓴 남성들에게 납치된 이후,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이처럼 무슬림 사람들을 사역하다 실종된 목회자는 최근 2~3년간 코 목사를 포함해 중국계 목사만 5명이다.

이 같은 납치사건이 말레이시아

전역에 알려진 이후, 화교 교회들이 주일 대예배 때 국가와 정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경찰서 앞에 가서 코 목사의 생환을 촉구하는 촛불 기도회를 여는 등 예전에 볼 수 없는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교회들이 코 목사의 생환을 위해 연합기도회를 가졌는데, 이 같은 교회의 대중집회는 1957년 말레이시아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코 목사가 살아있을 경우, 정글 속에 위치한 종교범수용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종교범수용소의 존재 여부는 한 MBB(Muslim



▶ 납치된 레이몬드 코 목사를 위해 특별 기도 모임 중(출처: heraldmalaysia.com 캡처)

background believers, 전 무슬림 배경 신자) 자매가 종교경찰에 체포돼 1년 반 동안 이곳에 감금돼 있다가 극적으로 탈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8.31 ~ 9.5)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이집트 주지사에 기독교계 콥트교도 여성 첫 임명

이슬람 국가 이집트에서 소수세력인 기독교계 콥트교도 여성이 처음으로 주지사에 올랐다고 AP통신이 지난 31일 보도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지난 30일 콥트교도 여성 마날 아와드 미카일을 이집트 동북부의 다미에타 주(州) 주지사로 임명했다.

이집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고통을 겪었던 콥트교인들이 국민으로 당연히 누릴 자유를 맞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세속화에 몰리지 않도록,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대만 국방부 “중국, 2020년까지 대만 공격준비 완료”

중국 인민해방군이 2020년까지 대만을 수복하기 위해 전면적 무력 사용 준비를 완료할 것으로 대만 국방부가 분석했다고 환구시보(環球時報)가 1일 대만 중앙통신사를 인용, 보도했다. 대만 국방부는 연례 중국군 군사력 분석 보고서를 국회 격인 입법원에 제출했다.

평화를 바라지만 더 강한 무력에 관해 욕망을 포기 못하는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봅니다. 이때에도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같은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으셨던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로 이 둘을 묶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브라질 박물관 화재, 주민 ‘분노폭발’ 도화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 아침 수백 명 규모의 시위대가 리우데자네이루 국립박물관 앞에 모여 부실 관리를 이유로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국립박물관 화재가 부정부패로 얼룩진 브라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기 때문이다.

화재로 정부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소중한 유산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않고 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관료들의 어리석음, 분노하는 시민들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족시킬 수 없는 존재적 죄인임을 깨닫고 모두가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옵소서.

伊 국방, “난민 하선 항구, 지중해 국가가 교대로 개방해야”

수년째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관문 역할을 해온 이탈리아가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들이 하선하는 항구를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교대로 개방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현지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이탈리아는 또 구조된 난민을 어떤 나라의 항구로 보낼지를 결정하는 기구를 창설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주님, 난민에 대한 조건없는 용인이나 거절로 사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들이 연합하게 하시되,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 아래에서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 9월 17일~9월 22일** ▶인천 계양 / 효성동교회 (조**)010-2632-7457 ▶전남 광주 / 예수마을교회 (박**)010-2330-5849 ▶전남 광주 / 봉선중앙교회 (황**)010-9907-2971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 (강**)010-7364-9982, 9.17~18(매일 06~18시) ▶전북 전주 / 사론교회 (진**)010-2638-1440, 9.17~18,20~21(매일 10~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9.17~22(매일 14~19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 (전**)010-5337-2771, 9.17,19~22(매일 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 (전**)010-4501-0059, 9.18(10~12시)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 (김**)010-9218-6023, 9.18(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 (조**)010-5417-9933, 9.18~21(매일 10~12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010-4510-1070, 9.19~21(매일 0~24시)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 (권**)010-7754-1726, 9.20(10:30~12:30) ▶경기 수원 / 영어느헤미야기도모임 (오**)010-2349-4641, 9.20~22(매일 10~22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 (최**)010-4661-4039, 9.21(19~21시) ▶전남 광주 / 십자가복음교회 (김**)010-9883-2347, 9.21(20~22시) ▶전남 광주 / 삶이예배인교회청년부 (진**)010-3305-3541, 9.20(10~12시)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9.21(10~14)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9.21(10시)~22(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9.22(10:30~12:00) ▶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 (김**)010-6269-4821, 9.22(14~18시) ▶경기 안산 / 안산안디옥교회 (김**)010-7728-7373

- 9월 24일~9월 29일** ▶네팔 포카라 / 복음과기도의집 (김**)9803260969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 (손**)010-3913-2677, 9.24~28(매일 10~20시) ▶경기 의정부시 / 열방교회 (김**)010-6269-4821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지상중계 | 복음학교 컨퍼런스- 강서침례교회 편(1)

모든 프로그램에 복음을 담아... 교회의 생명력 넘쳐



▶ 김경석 목사(강서침례교회 담임)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한다. 그러나 창세 이후 교회가 위기에 놓이지 않은 적은 없다. 어느 시대나 존재했던 교회의 위기. 문제는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난 7월, 순회선교단 주관으로 열린 복음학교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총체적 복음의 진리를 목회현장에 집중한 이후 일어난 교회의 변화’를 목회현장을 섬기는 목회자들의 육성을 통해 들어본다. <편집자>

저는 2011년도에 목회자 복음학교를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 3대 담임목사로 부임했습니다. 복음학교를 마치며 주님 앞에서 꼭꼭 숨기고 있던 1%가 처리되고 활기찬 마음으로 담임목사직을 출발하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였습니다. 물론 복음학교 이전에도 복음을 알고 있었고, 나를 누리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음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결심하고, 기도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복음은 증인의 고백을 통해 능력을 발휘

“하나님, 이제부터 저에게 사역할 기회를 주시면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이용하는 목회가 아니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도 믿지 못하는 예수, 나도 믿지 못하는 복음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그걸로 밥 벌어 먹고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11일에 부임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은 나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겠다. 매일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먼저는 내 자신이 경험하는 증인이 되

어야 되겠다. 적어도 나 하나 만큼은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행복한 목사로 남아있어야겠다” 그래야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복음은 능력인가 보다, 예수님 한 분이든 충분인가 보다’하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가 좀 순탄하면 목사가 여유를 부리다가 좀 어려우면 낙심해서 코 박고 있으면 ‘아! 복음은 능력이 아닌가 봐. 목사도 저러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게 뻔해 보여서 주님께 저부터 먼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학교에서 보고 깨달았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전에도 알고 믿어왔던 복음인데 왜 이것이 충격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그건 다름 아니라 그 복음을 전심으로 받고 그 복음에 인생을 송두리째 걸고 살아가는 증인들의 고백에서 나오는 진정성이었습니다. 아, 복음은 증인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구나. 생명은 생명 있는 자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낳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 자신이 먼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복음학교를 통해 제가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출석했던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 분위기여서 복음을 잘 전한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할 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정확하게 회심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게 결신을 하고 나면 이제 이 사람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훈련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러나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상처를 자주 받으니까 내적 치유, 그다음은 가정사역, 그다음에 또 실족한 성도들 달래기 위해 상담도 배워야 한다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부질없는 짓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을 낸 것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지고 고백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살아져야 하는 진리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매주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양육프로그램, 제자훈련, 상담 등을 복음으로 채우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처음 새가족반부터 마지막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까지 양육 커리큘럼에 모두 복음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개인 내면에 실제 될 뿐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 군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살아내고 실천할 것인지 양육 커리큘럼 전체를 복음으로 통일시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상담을 위해 오신 분들도 남편이든 아내이든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세우고 부활하신 주님의 발등상 앞에 세우니 이혼 서류를 찢고 나갔습니다. 그런 커플들을 여럿 봤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두 달, 석 달 상담을 해도 안 되더니, 복음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복음 앞에 서도록 했을 때 상당한 분들이 목양실에 이혼서류를 들고 왔다가 찢고 나가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화합... 생명의 역사 일어나

복음 자체가 능력이어서 그런지 그동안 교회 가운데 행하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복음을 통해서 참된 연합 또는 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부임 후 1년이 지나니 교회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임하기 전 교회를 떠났던 성도님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나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았던 성도님들도 마음이 아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을 다시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하늘 가족들과 다시 하나 될 기회가 왔다.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능력인지 아닌지 주님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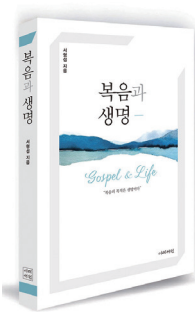
에서 점검받을 기회가 온 것 같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옛날에 가졌던 교회의 직분을 떼고 겸손하게 섬기시고, 계시던 성도님들도 그분들을 잘 받아들이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논리와 설득으로 가능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과정 중에 있지만, 복음이 마음까지 믿음으로 화합되는 곳에는 치유, 회복, 생명, 용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를 베풀습니다. 그때 공동체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나눕니다.

복음을 계속 나누다 보니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간증이 ‘나의 복음’과 비슷해져 갑니다. 복음이 실제 된 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왜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바꾸고 이끌어 가고 있는지 나누다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내 과거를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소박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침례를 받는 성도들의 고백이 점점 더 솔직해지고 투명해져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면무도회 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생명력이 잘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GNPNEWS]

I 신간 도서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다”



「복음과 생명」

서형섭 지음
이레서원
342쪽
21,000원

“이 책은 이 시대의 실존적인 고통의 심연에서 참 하나님을 목말라하는 자들에게 시원한 생수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한순간 광야로 내몰리며 고난을 경험했다고 밝힌 저자 서형섭 목사(말씀목상선교회 대표)는 그때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담아 ‘복음과 생명’(이레서원)을 최근 펴냈다.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생명의 하나님, 언약의 역사, 복음과 생명, 생명의 삶에 관한 내용의 총 4부로 정리했다.

1부 ‘하나님, 생명을 주시다’는 인생은 복음으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초월적 존재임을 강조하지만, 현실적 필요를 무시하며 살 수 없는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만물 안에 간혀 신음하는 무기력한 성도들을 향한 긍휼한 목자의 마음과 영원을 갈망하는 인간의 실존을 직면할 것을 권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것보

다 ‘목회자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곤경을 인식시키는 것’이라는 폴 틸리히의 말을 통해 자신도 그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부 ‘언약의 대장정’은 기존의 언약 신학, 요한 신학, 바울 신학,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같은 신학의 유산들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조화롭게 요약하고 있다.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계획’을 거시적인 앵글 속에 담아 소개하고 있다.

3부 ‘복음에서 생명으로’는 고전 15:3~5절에 근거, 복음을 십자가 복음, 장사 복음, 부활 복음, 현현 복음의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필자는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성소가 지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 성소에서 이루어진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다.

4부 ‘생명으로 사는 삶’은 영생은 죽음 이후에만 누리는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귄이 곧 영생의 삶임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교회가 궁극적 진리를 전하는 건전한 신학이 희미해지고 세속화된 야만인의 기독교로 전락하는 현재, 영생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이 책이 진리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GNPNEWS]

기획 | 창조 이야기(3)

빅뱅에서 말하는 먼지는 어디에서 왔을까?... ‘빅뱅의 허상’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을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물질은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는 열역학 제1법칙이 있다. 모든 것은 다 물질로 되어있다. 그런데 물질이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누군가가 세상을 만들었거나, 혹은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거나.

인간은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마침내 빅뱅 이론을 생각해냈다. 몇 년 전 비행기 옆 좌석에 앉은 버클리 대학교수와 창조와 진화에 관해 얘기한 적이 있다. 그는 진화를 믿으며 세상은 빅뱅으로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우주의 모든 물질이 마침표보다 더 작았을 수도 있는 하나의 아주 고밀도, 고온의 지점에 집중되었죠”

이것을 믿으라는 것인가? 하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는 과학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이다.

‘수십억 년 후 어느 날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다시 조그만 점으로 응집될 것이고 또다시 빅뱅이 일어날 것이다. 빅뱅은 800~1000억 년마다 일어날 수 있다. 물질과 에너지만 사라질 뿐 아니라 공간과 시간도 사라진다’

물리학자들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거대한 폭발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제로(zero), 무(無).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커지면서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더 많은 물질들로 채워지게 되었고, ‘우리’가 생겨났다. 나는 이것은 과학이 아닌 동화라고 생각한다.

빅뱅 이론의 두 가지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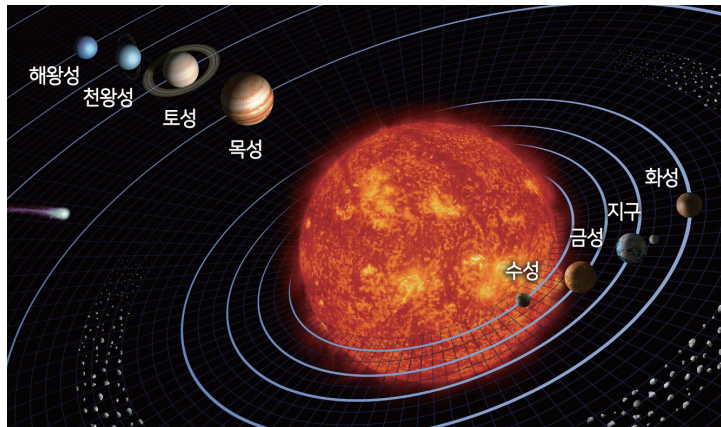
계속해서 옆에 앉은 버클리 교수에게 그 ‘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다. “200억 년 전에 태양계의 모든 먼지가 이 점으로 끌려오며 회전이 일어났고, 그 회전이 점점 더 빨라지다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이것이 빅뱅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날아가서 은하계와 해, 달, 별 등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생겨났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별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첫 번째는 200억 년 전의 먼지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를 믿고, 그들은 ‘태초에 먼지가...’를 믿는 것이다. 그렇다. 이것은 종교다. 미디어는 이것이 과학과 종교의 대립인 것처럼 만들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종교 vs 과학’이 아니라 ‘두 종교’ 간의 대립이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든지 진화론을 믿든지 선택해야 한다. 이 둘 사이의 여러 차이점 중 하나는 진화론 종교는 세

금 보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오류는 우주가 법칙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력, 원심력, 관성, 보일의 법칙 등. 이런 법칙들은 다 어디에서 왔으며, 왜 진화하지 않는가? 왜 중력은 항상 일정한가? 아이들의 회전 놀이기구에도 훌륭한 과학이 담겨있다. 4학년 아이들을 회전 놀이기구에 태우고 고등학교 미식축구 선수들을 시켜서 가능한 빠르게 시계방향으로 돌린다고 상상해보자. 이 아이들은 4단계의 상태를 거칠 것이다. 1단계에서 아이들이 형들에게 외친다. “더 빨리요, 더 빨리!” 그러다 시속 30마일 정도 되면 아이들은 2단계에 돌입한다.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고 떨어질까 봐 기구를 꼭 붙잡는다. 3단계인 시속 60마일이 되면 아이들은 다시 소리를 지른다. “그만, 그만, 제발 천천히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4단계인 시속 100마일이 되면 아이들은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날아갈 것이다. 이때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물리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회전 놀이기구에서 떨어진 아이들 역시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날아갈 것이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물리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전하는 물체가 부서지면 그 파편들은 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날아간다.

이처럼 우주가 회전하는 점에서 시작되었다면, 어떤 행성들은 왜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알려진



▶ 큰 에너지를 동반한 자연재해는 파괴와 무질서와 혼돈을 낳는다. 그러나 대폭발을 경험했다는 태양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인력에 의해 완전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공전하고 있다(출처: explorecuriosity.org 캡처)

91개의 위성들 중 8개는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놀랍게도 목성, 토성, 해왕성은 양쪽으로 돌아가는 위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해의 98%가 수소나 헬륨인데 왜 다른 행성들에는 1% 미만의 수소와 헬륨밖에 없는가? 모든 것이 다 빅뱅에서 왔다면 태양계의 9개 행성들은 왜 그렇게 굉장히 다른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어떤 은하계는 전체가 반대로 돌고 있다. 왜일까?

진정한 빅뱅에 대비하라

그 이유는 간단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일부터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빅뱅 이론이 어리석게 보이도록 하신 것은 아닐까?

그러나 나는 다른 의미에서 빅뱅을 믿는다. 성경이 빅뱅을 가르

치기 때문이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베드로후서 3:10)” 여기서 ‘소리’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빅뱅’이다. 그러니까 빅뱅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빅뱅을 믿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네, 저는 빅뱅을 믿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이것에 대비해 구원받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상이 빅뱅으로부터 시작됐고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해왔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예전처럼’ 회복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회복하신다는 것인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원형의 모습대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이다.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한 사람 연락 기다리며 전도지 1000장을 나눕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11년 차 되신 70대 독신 선교사님께서 지난 4월 말 괴한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간 선교사님 댁에서 목사님의 끔찍한 피살 상태를 최초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무척 당혹스럽고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사건 최초 목격자로서 경찰의 조사로 많은 부담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오면서 유서도 쓰며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막상 가까이 교제하던 선교사님이 이런 일을 당하니 공황상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염려는 안전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무슬림으로 추정되었고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저의 신상 정보가 경찰에 노출이 된 상



본지 자료 사진

태라 불안은 가중되었습니다. 용의자 중 한 사람이 마피아 두목의 친척으로 알려지면서 저희에 대한 정보가 마피아의 손에 갈 수 있는 사회 구조라는 현지인의 말에 더욱더 두려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야 그렇다 쳐도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

이 우리를 공황으로 몰아갔고, 밤만 되면 이런 두려움이 온몸과 마음을 지배해버려 몇 날 며칠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끝이 여기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말로만 떠들었습니다” 이런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 부부를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이신데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에게 실수는 절대 없다! 그분의 허락하심이 최선이고 우린 그분을 믿는다!” 이 고백 속에 저희 부부는 마음을 회복하고 잠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허락하심이 최선

선교사님께서서는 생전에 ‘길거리에서 전도지 천장 뿌리면 한 사람 정도 전화 연락이 옵니다’라면서 시간만 나면 노방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쉬지 않고 전도를 하였던 선교사님의 사역이 얼마나 귀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계속 전도의

씨를 뿌리며 더욱 영혼 구원에 열정을 쏟아야겠다는 마음도 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돌아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지역인 이곳은 도시 전체가 휴양지 분위기가 물씬 나지만, 붐 떠 있는 교인들을 끌어내리며 성경공부와 예배, 양육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과 성경캠프를 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공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이전할 상황이지만 아직 새로운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로운 장소를 찾을 때까지 가정을 돌며 양육하고 예배하려 합니다.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GNPNEWS]

우크라이나= 김중홍·윤민정 선교사

 나눔&나눔 |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전도피켓 할머니로 살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장기순** 권사(선린감리교회)

예수님을 만났던 교회를 사랑하여 45년간, 그중 30년은 사찰로 섬기고 있는 장기순 권사를 만났다. 장권사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가감 없이 풀어냈다. 자기가 아닌 오직 주님이 행하신 일만 드러나길 원한다는 장 권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한 교회를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섬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간 세월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닌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평판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지만 교회에서도 무엇이든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교회 주일예배 안내위원이 필요하다는 광고를 보고 제가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15명이 모였고 제가 주도한 일이다 보니 안내위원장이 되었지만 겸손히 안내부 지체들을 섬길 줄 몰랐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평가하였고 주님 마음이 아닌 내 마음대로 이끌어갔습니다. 아마 지체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안내부를 그만두라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음에도 당시에는 받아들이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빗장을 지르고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목사님에게도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나의 열심

- 많이 어려우셨겠네요.

“이후 7년 정도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올라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하고 협심증이 찾아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에 입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력도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늘 부정적이니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하루는 아이들이 엄마

얼굴 보면 마귀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나 스스로 자아의 감옥에 갇혀서 스올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위로할만한 것도 없고 치료할만한 것도 이 세상엔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너무 원통하고 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여전히 교회에 충성하는 남편이 꼴보기도 싫었습니다. 날마다 싸우며 이럴바에 차라리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탄이 나를 조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분리하고 자녀들과 싸우게 하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사탄의 수였습니다”

- 상황이 쉽지 않았겠네요. 어떻게 됐죠?

“미국에 있는 딸네 집에서 3개월간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딸이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메시지 영상이었는데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니다’라는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딸과 함께 그분에 대해 찾아보다가 그 선교단체에서 여러 훈련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미국에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한국에 돌아와 복음학교를 통해 처음으로 총체적인 복음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전 그동안 복음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복음인 것만은 확실해 계속 훈련의 섬김이로 참석했습니다. 복음을 더 듣고 배우고 싶어 6개월간 공동체로 합숙하며 훈련을 받는 복음사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 훈련이 어땠나요?

“훈련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해본 경험이 없는 내가 지체들과도 교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체들과 연합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훈련과정에서 복음의 진리를 계속 듣는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차츰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새 생명으로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라고 주님이 초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게 복음이 더욱 실제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왔습니다”

- 결국 복음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신 거군요.

“네.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복음이 지금에야 제게 믿음으로 화합되었던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잠깐 교회에 나갔다가 청년이 되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은 현재 출석하는 교회에 오면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오다 보니 새벽종을 치기도 하고 미처 못 일어나신 목사님을 깨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보지만 ‘아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다른 기도는 할 게 없었습니다”

복음으로 나의 문제를 깨달다

- 처음에 주님이 그렇게 믿음을 주셨군요.

“하루는 남편이 새벽에 나가자 말라고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죠. 아이를 갖기 위해 교회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붙잡지 말라고요. 남편은 ‘기도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으면 못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했습니다. ‘아이 갖게 되면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더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아이 가지면 한 영혼 구원할 수 있어요’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제 몸이 안 좋아서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신을 못한다고 했던 제가 임신이 되었다면 주님이 10개월 동안 지켜주실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켜주셨고 병원에 한번 가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후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 주님이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주셨군요.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돌아보면 모두 문제해결, 소원성취를 바라는 수준이었지만 주님이 어린아이 같은 제게 믿음을 주시려 했나 봅니다. 80년대에는 철야기도를 하면 다음 날 새벽기도까지 이어서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기도하면 나왔습니다. 하루는 큰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는데 아이가 ‘엄마, 병원 가면 안 낫잖아. 엄마가 기도해야 낫잖아’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땐 전도도 참 잘했습니다. 1년 동안 19가정을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상, 속회 인원상, 헌금상, 성미상 등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주일마다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교회 보내고 양동이를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성미를 건어서 교회로 가지고 왔습니다. 나름대로 열정과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인정받으려던 나의 몸부림이란 것을 복음을 만난 후에야 알았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기도로 함께 동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 가족도 복음화시키지 못하고 나 하나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열방을 품으라, 기도하라, 하나님과 모든 것이 일치되기 위한 초대를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 것이었더군요”

전도는 복음을 들려주는 것

- 놀라운 발견이군요. 기도로 동역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게 결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은 전도지를 쥐도 받지 않습니다. 외쳐도 듣지도 않죠. 그렇다고 어떻게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주님의 간절한 지상명령이기에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복음 없이 살아가는, 옛날에 나와 같이



▶ 교회 앞에서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 전도하는 장기순 권사

- 기도와 전도에 열성이 대단하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기도에서 벗어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의 초대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산다는 것이었고 하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영혼들 속에 찾아가 주시기를 구하며 피켓을 들고 길거리에서 있습니다”

-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백화점 앞에서 전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땐 마이크를 들고 복음을 외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신병자야, 병원에나 가라. 시끄러워’라고 소리치며 지나갔습니다.

(6면에 계속)



▶ 해외아웃리치에서 팀원과 현지 성도들과 함께 한 느헤미야52기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임마누엘의 복음 (2)

내 인내의 한계가 바닥날 때, 주를 보라

시편 73편은 하나님께서 선한 자를 축복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구약의 명료한 사상을 보여준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이지만 문제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의인의 고통은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악인은 하는 일마다 번성하며 두려움을 생각지 않으며 죽을 때까지 기쁨지게 살다 편안히 죽는 것처럼 보인다.

‘의인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 하며 거의 실족할 뻔했다(시 73:2)고 시편기자는 고백한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 천국에 속한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와 같은 문제로 실족당한 사람들이 왕왕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병에 걸린 줄 아셨지만 즉시 가

지 않으셨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서 그간 눌렸던 섭섭함과 상처로 마리아는 울음을 터트렸다. ‘주님! 우리가 부탁할 때 오셨더라면!’ 이것은 시편 기자의 심정과 같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이신 줄 아는데 왜 이 신음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십니까? 왜 저들의 교만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이런 탄식은 정말로 주님을 알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고백이다.

우리의 현실은 악인들이 마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상을 전파한다. 더 비참한 것은 교회마저도 세속화에 물들어버렸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흘려서 물을 들어켜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

떻게 알 수 있으랴?’(시 73:10~11, 새번역)

실족해버린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세속을 동경하고 믿어버린다. 하나님을 과거의 존재로만 믿는다. 기도해도 현실적인 응답이 없으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낙담하고 만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의인들이 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가 이집트 콤프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살인과 폭력이 가득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에서도 지금 주님은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시며 신실하게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신다.

그러나 주님 나라의 성취를 믿으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만 죄인들의 번성 앞에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일 때 소망이 흔들리기 마련이고, 낙담은 심한 고통이 된다.



일러스트= 노주나

‘주를 가까이하는 게 내게 복이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다’면서 당당하게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지만 세상의 저항에 부딪히고, 선과 악이 혼합된 모호한 경계에서 주저하고, 이곳저곳에서 주님 때문에 망신당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고백에 걸맞은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 내 시선

을 주께로 향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 인내의 한계가 바닥나고, 내 힘과 최선이 완전히 주저앉을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2017년 2월)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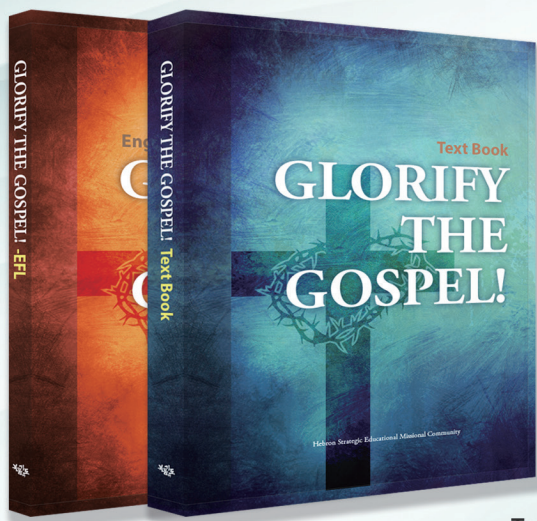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과 기도 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복음을 영화롭게하라”

GLORIFY THE GOSPEL!



Text Book : 3만원
EFL : 2만 5천원

헤브론원형학교와 헤브론교육선교대학이

복음스터디 수업에 사용한 영어 복음 교재가 출간됐다.

주교과서로 사용돼온 ‘GLORIFY THE GOSPEL! Text Book’과

영어교육을 위한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교재 두 종이다.

집필은 헤브론 전략적 교육선교 공동체(Hebron Strategic Educational Mission Community, Hebron_SEMIC)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The textbooks used in Gospel Study class in The School.

Hebron and Hebron Educational Mission College were published.

These are the two main textbooks: ‘GLORIFY THE GOSPEL!’ and ‘EFL textbook’ used for English education.

Each book costs 30,000 won and 25,000 won.

Hebron Strategic Educational Mission Community (Hebron_semic) also joined to write it.

구입문의
Purchase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오늘도 이 복음을 심습니다

그래도 최소 70~80명이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동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었죠. “여러분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천국은 실존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생명은 없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 갈 준비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이는 미쳤다고도 하지만 어떤 이는 음료수를 사다주고 가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어렵진 않았습다. 오히려 행복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가 분명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음 아픈 사연도 있습니다”

- 그게 뭔가요?

“저희 어머니는 무당이셨습다. 그러면서도 제가 어릴 적, 너만은 교회 다니라고 하시면서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동네 이름이 굿을 많이 한다고 하여 굿배이었습니다. 무당이 많았죠. 그때는 벌어먹기 위한 수단으로 무당 일을 배웠습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생계를 위해 무당이 되셨습다. 한번은 제가 다니던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갔습다. 저는 어머니께 전도사님을 소개했는데 어머니가 우리 딸 잘 부탁

한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엄마에게 전도를 왜 못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옆 동네 무당은 자신이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교회 나간다고 하시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을까?’ 혼잣말하시던 어머니가 생각이 납다. 나중에 교회에 출석하면서 우리 엄마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 그런 안타까움이 더욱 전도에 열심을 내게 된 동기가 됐군요.

“제가 올해로 70세가 되었는데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피켓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지금 이 근처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완공되면 아파트를 돌며 피켓 할머니가 될 계획입니다. 어느 날 피켓 할머니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궁금해지겠죠? 언젠간 주님이 회복하실 거니까 저는 오늘도 심는 자로 만족합니다. 어떻게 나같은 인생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복음의 농도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지.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달려가고 싶습니다”

Y.K.



“복음을 흥내 낼수록 내 모습은 어설픈 모조품 같았다”

기독교교를 다니며 복음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졸업 후 2년간 선교지에서 단기선교사로 살면서 복음의 실제와 실존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복음 없이 산다고 할 수는 없었으나 복음대로 산다고 할 수도 없었다. ‘복음의 삶이 이런 어설픈 수준인가?’ 질문하던 중 6개월간 공동체 신앙훈련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말 묻고 싶었다. ‘복음, 진짜입니까?’

‘부르심’이라는 첫 강의에서 주님은 “잘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고 하셨다. 잘하고 싶었고, 뒤로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부딪혔다. 입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온갖 지저분하고 음란한 생각과 게임이 계속 생각났다. 스스로 이겨낼 수 없어 첫 한 달 동안 매일 밤잠을 자지 못했다. 말씀묵상도 그저 유려한 나눔과 비범한 깨달음을 원하고

있을 뿐이었다. 개인 기도를 하려고 앉으니 생각나는 말을 다 끄집어내도 10분도 지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복음스터디를 하면서 복음을 막연히 이해하면서 알았다치고 넘어간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음이 내게 실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없어 행복한 척, 잘 지내는 척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타들어가는 시커먼 속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만나주셨다.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거룩하고 경외할 만한 충분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을 아는 양, 잘난 체하고 있던 나의 존재는 초라하고 가련했다. 당장이라도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책상다리를 붙들고 벌벌 떨며 울었다. 며칠 후, 하나님은 내가 그날 밤의 체험과 눈물을 믿음의 근거로



일러스트=이예원

삼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가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았고 기쁨이 샘솟았다.

어느 날 훈련생 중 한 명의 어머니가 소천 하셨다. 그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셨다는 나눔을 들은 적이 있다. 만일 이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부르심을 저버리고 떠나겠

다는 마음뿐이었다. 이런 고민으로 며칠 밤을 자지 못하다 두 차례나 더 이런 소식이 들려왔다. 더욱 몸서리쳐졌다. 사탄의 속임이요 공격이라 여겨 일부러 떠올리지 않았다. 그런데 주님은 가족의 생사에 대한 걱정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을 최고의 만족으로 삼는다는 일은 이렇듯 구체적인 일이었다.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을 이제야 누리기 시작하나보다 싶었다. 그런데도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권위에 대한 순종도 안 되고,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나의 존재를 보면서 스스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내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었다. 흥내 내려 할수록 어설픈 모조품 같았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뵈을 알지여다(시 46:10)” 가만

히 있으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처럼 격정적으로, 절박하게 기다리는 것이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실제이신 게 맞지만, 그분이 내 안에서 여전히 많은 과정을 허락하셔야 함도 현실이다. 그러나 ‘땀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라는 말씀을 힘입어 달려갈 준비가 되었다. 제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괜찮다. 이 죄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한다. [GNPNEWS]

김아곰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강연에서 ‘새로운 통일시대’ 주장… 주민들 “통일시대가 뭐요?”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를 한 탈북자들의 모습(출처: VOA korea 캡처)

경비대를 거쳐 도 보위부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이들 가족 일행은 20대 부부와 둘이 지난 야기, 시동생까지 총 4명으로 탈북을 방조하기로 약속한 경비대의 안내를 받아 강을 건넜지만, 다른 초소 경비대원들에게 적발돼 체포됐다. 소식통은 “도강을 도와주던 경비대원은 해산에 있는 보위소대에서 취조를 받고 있고, 일가족 4명은 양강도 보위부로 이송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함경북도에서는 복송된 탈북자 3명이 열차를 통해 관할 지역으로 이송되면서 해당 보위원들에게 ‘반역자’ 취급을 받는 장면도 목격됐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날 통화에서 “8월 말경에 중국서 붙잡혀온 가족 3명이 호송되는 기차에서 승객 중 몇 사람이 말을 걸자 보위원들이 이들에게 ‘반역자들에게 왜

말을 거느냐’며 거칠게 저지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전기 사정으로 열차가 멎어 시간이 흐르고, 분위기도 좀 누그러져서 도강자들에게 물어보니 ‘보위원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아 너무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면서 “가지고 있는 꼬부랑 국수(라면)를 생으로 쪄더니 보위원 눈치를 보면서 어린 아들과 나눠 먹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들어보니 이 가족은 중국에서 10년을 살았고, 거기서 태어난 7살 된 아들도 있는데, 아내가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잡혀서 가족이 전체 복송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달 28일 청년절 모임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원들을 모아 놓고 한국행을 시도한 형제를 등장시켜 비판하는 사업까지 진행했다”면서 “이 청년들에게는 원수님의 은혜를 배반해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두 형제는 세 번의 탈출 시도 끝에 한국행에 성공한 누나를 따라 중국에 건너가 라오스를 통해 한국행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公安)에 붙잡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러한 통제와 단속은 9·9절을 준비하는 시기와 겹쳤다. 북한이 외국 정상들까지 초청하며 공을 들이고 있는 9·9절을 앞두고 탈북을 시도한 것은 정치적 범죄로 간

주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북한은 9·9절을 앞두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통일시대’를 강조하는 강연회를 여러 차례 연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에서는 최근 강연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의 유언대로 새로운 통일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주로 내부의 주요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남조선(한국)을 해방하고 남녘 동포들과 일사안고 통일을 맞이하자’는 내용의 강연이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통일시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하며 강조하는 바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 같은 모호한 강연 내용에 의아함을 내비쳤고, 강연자에게 새로운 통일시대가 무엇인지 묻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9·9절을 앞두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전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이나 신문에서 국가계획을 완수했다거나 초과달성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믿지 않는다. 해마다 계획을 완수해 왔지만 나날이 쪼들려만 가기 때문”이라며 “계획서를 만드는 부서의 일꾼들조차도 초과달성이라는 말은 신문이나 방송에서만 쓰는 용어로 여기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GNPNEWS]



복음의 능력

우리의 모범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가는 이를 볼 때 우리 분노하며 쉽게 비난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이 주신 분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성령님의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유익보다 해를 끼치기 십상이다.

모든 문제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신다.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한다면, 온유함과 사랑으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범을 따를 수 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사랑과 인자와 긍휼의 마음을 품는다.

[GNPNEWS]

<HOLY SPIRIT(2006), A.W.토저, 규장판>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권경숙 〈내 이름은 모리타니 마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온 생애에 담은 여인



“나의 연약함이나 피곤, 부족함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란 선물 앞에서는 사그라졌다... 인슐린을 먹는 지푸라기 같은 몸이더라도 기쁨을 주시니까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아마 강철이라면 꺾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어떠한 질병도 우리의 영혼을 꺾을 수 없

다!”(p.89)

저자의 고백이 마음에 와닿았다. 작은 체구의 여린 자매 선교사. 36살, 전도사 시절 여행 중에 우연히 모리타니를 밟게 되고 ‘이 땅에 내 백성이 많다’는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모래도 타버린다는 사막으로 건너온다.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주님께 먼저 보내고, 갓난 아들과 아프리카의 빈민촌을 씩씩하게 누비며 20여 년을 살아가고 있는 권경숙 선교사.

한국 대사관조차 없는, 무슬림 100%를 자랑하는 이슬람의 나라, 모리타니. 수도도 아닌 시골구석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금식기도 끝에 교회를 개척했다. 마녀로 오해를 받고, 살인 누명을 쓰고, 돌을 맞고, 수도 없는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 그러나 모리타니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그녀를 일으키셨고 끝까지 사랑하며 승리하게 하셨다. 사막 한가운데 푸르른 밭이 생기고, 아들과 남편

에 의해 장녀로 팔린 여인이 사업가가 되고, 감옥의 살인자들이 변화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장애인들이 평창 스페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일은 그저 감동적인 인간승리가 아니다.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불가능 속에서 전능하심을 드러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였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죽어가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임종을 지켜주고 장사를 지내 주다 보니 교회 마담이 만지면 죽는다는 소문이 돌게 되어도 그녀는 외면할 수 없는 소외된 자들의 마지막 친구였다. 내일 먹을 양식을 계산하지 않고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굶는 자들과 함께 다 나누어 먹으면, 내일은 또다시 주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일상을 살아가는 증인. 교회를 핍박하고 저주하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킨 사랑의 사도. 그녀의 삶 속에서 모리타니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절절히 보인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암 투병 중이고, 부신을 제거하여 평생 약물에 의지해야하고, 오랜 당뇨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녀를 ‘마마’라 부르며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있기에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 땅, 모리타니. 도대체 무엇이 이 작고 연약한 한 여인을 뜨거운 모래사막에서 하나님의 특공대로 살게 했을까.

이 책에는 성경말씀의 깊이 있는 묵상과 유창한 설교가 담겨있지는 않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온 생애에 담아 순종한 한 여인의 삶이 가득 펼쳐져 있다. 철저한 자기부인으로 더욱 빛나게 드러난 복음이 모든 어려움과 악함, 고단한 환경을 넘어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굉장한 사역의 열매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업적이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대변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다. 하지만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랑

할 수 없을 때, 함께할 수 없을 때, 도와줄 수 없을 때, 머무를 수 없을 때, 기다릴 수 없을 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때, 육체를 거슬러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 되기를 포기하지 않은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비결을 ‘기쁨’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구원의 기쁨, 영혼을 얻는 기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은 모든 고난을 넘어서게 한다.

동일한 기쁨을 소유한 자로 내 삶의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본다. 더욱 나를 드러 사랑하고 섬길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상황이 아무리 어렵든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든지, 우리 안에 이미 담아두신 주님의 기쁨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마지막 쫓대를 향하여 달려 나갈 힘을 주신다.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은 머뭇거리지 않고 마지막 전력질주를 할 때이다.

[GNPNEWS]

이귀영 선교사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사실은 모든 집에는 반드시 기초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건축을 하면서도 집을 잘 지을 생각만 했을 뿐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지금, 건물의 기초들은 제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촉매제가 됩니다.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아는 저로서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압니다. 성경에서 모퉁이돌이라는 말을 보았을 때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corner)의 머릿돌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집을 지을 때 건축 자재 중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것이 돌이었을 것입니다. 집을 세울 때는 주춧돌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건물마다 네 모퉁이가 존재합니다. 그중 기준이 될 만한 한 모퉁이를 결정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건물의 방향을 정합니다. 주춧돌을 시작으로 한 선을 긋고, 그 선을 직각으로 다른 한 선을 긋습니다. 기초에 그려진 선을 따라 벽체가 세워지고 직각이 되는 다

른 면이 세워지면서 건축물의 모든 벽체가 완성됩니다.

혹, 실수로 변경이 필요할 때는 기준점으로부터 치수를 변경해 건축하게 됩니다. 건물의 벽과 다른 모퉁이는 변할 수 있지만 기준으로 정한 첫 번째 모퉁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변한다



면 나머지 벽체들 모두 변경될 수 밖에 없고 그 건물이 정확한지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을 2층으로 건축할 때에도 기준점에 맞추어 다림줄을 통해 수직을 정합니다. 첫 번째 모퉁이의 기준점은 절대로 이동할 수도 변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

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예수로부터 맞추어진 삶, 예수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춧돌은 건물의 기초석입니다. 주춧돌은 건물의 모든 무게를 지탱하고 유지합니다. 만약, 주

“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제 심령 성전의 기초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

일러스트= 이수진

춧돌이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견고한 주춧돌만이 강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건축물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을 때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풍파와 시험, 고난이 와도 내가 서 있을 곳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리고 주춧돌은 건물의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건물을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면의 습기로부터 분리해 건물이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특성은 세상과 한 몸 되어 있던 나를 분리하여 썩어질 운명에서 건져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너무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제 심령 성전의 기초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을 넘어 기초석을 중심으로 이어진 교회는 건물이 완성됨과 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이제 저를 이 땅의 집을 짓는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독교학교에서 선교사로 헌신한 다음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복음만을 전할 뿐입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자만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만 전할 것입니다. [GNPNEWS] 최진국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 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8. 8. 23 ~ 9. 6 (가나다 순)

개인 김경선 김성훈 김애심 김장일 김혜신 나지혜 노은옥 박성규 박숙자 박승은 박해진 송일양 안민자 안수경 안현숙 이경형 이남준 이란영 이삼연 이 순 이순희 이준진 임항주 장선주 정해원 조경미 조명숙 조형광 차정규 최정숙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화제일교회 문광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산돌교회 새순교회 샘물교회 순회선교단 순회선교단미주지부 웹 시은좌교회 시흥교회 양덕원김리교회 열매교회 원주소마교회 전주은혜샘교회 주식회사미션21 죽전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민족기도원 트리니티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